

일부 공무원들의 사회심리적 요인과 직무스트레스와의 관련성

박호진¹, 박승경², 조영채^{3*}

¹충남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²대전보건대학교 피부미용과,

³충남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및 의학연구소

Relationship Between the Psychosocial Factors and Job Stress Among Clerical Public Officers

Ho-Jin Park¹, Sung-Kyeong Park², Young-Chae Cho^{3*}

¹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²Department of Beauty Art & Skin Care, Daejeon Health Science College

³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and Research Institute for Medical Sciences

요약 본 연구는 일부 사무직 행정공무원들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고 사회심리적 요인(A형 행동유형, 통제신념, 자기존중감)과 직무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은 C도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634명(남자 505명, 여자 129명)이었으며, 자료 수집은 2013년 2월 18일부터 3월 10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구조화된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에 의하였다. 연구결과, 조사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은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직급, 근무경력, 공무원생활에 대한 만족도, 흡연상태, 음주상태, 수면시간, A형행동유형, 통제신념 및 자기존중감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회심리적 요인과 직무스트레스 수준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업무요구도는 내적 통제신념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업무의 자율성은 A형행동유형, 내적 통제신념 및 자기존중감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상사의 지도도는 외적 통제신념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위계적다중회귀분석 결과 직무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 주관적인 건강상태, 직위, 잔업시간, 질병으로 인한 결근, 업무에 대한 만족도, 수면시간, 여가시간, 외래진료경험유무, A형행동유형, 통제신념 및 자기존중감이 선정되었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32.1%이었다. 위의 모델에서 보면 A형 행동유형, 통제신념 및 자기존중감 등의 사회심리적 요인이 추가됨으로 해서 15.0%의 설명력을 증가시켜 직무스트레스에 사회심리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levels of job stress, as well as its association with psychosocial factors (type A behavior pattern, locus of control, and self-esteem).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were given to 634 clerical public officers in the C Provincial Office between February 18 and Mar. 10, 2013. As a result, the job stress levels of the subject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age, sex, educational level, marital status, job position, job career, satisfaction in job life, smoking, alcohol drinking, sleeping time, type A behavior pattern, locus of control, and self-esteem. Regarding the correlation of job stress and psychosocial factors, the level of job demand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internal locus of control. The decision latitude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type A behavior pattern, internal locus of control and self-esteem. Supervisor support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external locus of control. In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affecting factors to the job stress selected variables, such as age, subjective health status, job position, overtime work, experience of sick absence, satisfaction in work, sleeping time, leisure time, visiting out-patient department, type A behavior pattern, locus of control, and self-esteem, and the explanatory powers of these factors was 32.1%. In particular, the factors related to the psychosocial factors (type A behavior pattern, locus of control, self-esteem) were strongly related to the job stress, increasing the explanation of factors up to 15.0%.

Key words : Public officer, Job stress, Type A behavior pattern, Locus of control, Self-esteem

*Corresponding Author : Young-Chae Cho(Chungnam National Univ.)

Tel: +82-11-701-6452 email: choyc@cnu.ac.kr

Received April 17, 2014

Revised May 9, 2014

Accepted September 11, 2014

1. 서 론

최근 우리나라는 국민복지시대를 맞이하여 국민들은 정부로부터의 더욱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 같은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끊임없는 행정혁신의 추구 및 모범이 되는 자치구 형성을 위해 과거 어느 때 보다 과중한 업무와 조직 내에서의 보이지 않는 경쟁 등, 직무로 인한 다양한 스트레스원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직무스트레스는 직장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과중한 업무, 역할 및 대인관계의 갈등, 업무자율성의 결여, 역할 모호성, 보상 부적절 및 비합리적 권위적 직장문화 등으로 인해 점차 증가하고 있다[1]. 따라서 직무스트레스는 한 개인이 근무하고 있는 직무의 성격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 과정에서 사회적지지 또는 사회심리적 요인 등의 중재자가 관여하여 직무스트레스를 더욱 악화시키거나 감소 또는 완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 수준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직급, 근무경력 등의 직업관련 특성뿐만 아니라 건강관련행위의 실천여부, 직무요구도, 직무자율성, 직장 내에서의 사회적 지지와 같은 직무내용 및 사회심리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

개인이 갖고 있는 사회심리적 요인으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던 것이 A형 행동유형(Type A Behavior Pattern)과 통제신념(Locus of Control) 및 자기존중감(Self-esteem) 등이 있다.

A형 행동유형은 어떤 특정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참을성이 없어지고 공격적 성향을 보이며, 시간의 다급함을 느끼고, 성취동기가 강한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A형 행동유형의 경향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더 많이 받아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통제신념은 Rotter[4]에 의해 개발된 개념으로 내부적 통제신념과 외부적 통제신념으로 나누게 되며, 내부적 통제신념은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한 사건의 발생이 그 자신의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고 인지하는 특성이고 이와 반대로 외부적 통제신념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 사건은 어떤 특정의 상황에서 한 개인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즉, 그의 의지나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받

아들이는 특성을 뜻한다. 내부적 통제신념이 강한 사람은 외적 통제신념이나 우연신념의 성향을 보이는 사람보다 자아존중감이나 자신감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 이러한 인적인 성향은 건강문제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자기존중감이란 자존감정, 자기가치, 자기존중 또는 단순히 자기평가라고 해석되며, 자신의 가치, 능력, 적정성 등의 자기평가가 긍정적인 것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자기존중감은 스트레스 인지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사회 심리적 요인으로서 검토되어 왔으며, 자기존중감의 저하는 본인을 불쾌하게 하며 불안이 높아지고 강한 스트레스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직장인들이나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연구내용도 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직무특성이나 사회적 지지 등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많았으며, 개인이 갖고 있는 사회심리적 요인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부 사무직 행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들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고 사회심리적 요인(A형 행동유형, 통제신념, 자기존중감)과 직무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공무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직업관련 특성 및 건강관련행위 특성에 따른 사회심리적 요인(A형 행동유형, 통제신념 및 자기존중감)과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한다.

둘째, 조사대상 공무원들의 사회심리적 요인(A형 행동유형, 통제신념 및 자기존중감)과 직무스트레스 수준과의 관련성을 규명한다.

셋째, 조사대상 공무원들의 직무스트레스에 관련된 요인을 규명한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C도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의 선정은 각 기관의 부서별 목록을

작성하여 그 목록의 일련번호에 따라 계통적으로 대상을 선정하는 계통추출(systemic sampling)에 의해 700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결과 657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응답이 부실하여 분석에 사용할 수 없는 23명의 설문지를 제외한 634명(회수율 90.6%)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2 연구 방법

자료 수집은 2013년 2월 18일부터 3월 10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구조화된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지(self-administrated questionnaire)를 이용한 설문조사에 의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사전에 훈련받은 조사원들이 조사대상의 각 부서를 방문하여 피조사자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 및 조사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참여의 동의를 얻은 다음 설문지를 배포하고 일과시간 외에 작성토록 하여 회수하였다.

조사에 사용한 설문지의 구성은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특성 6문항, 직업관련 특성 5문항, 건강관련행위특성 8문항, A형행동유형 10문항, 통제신념 7문항, 자기존중감 10문항 및 직무스트레스요인 22문항(업무요구도 5문항, 업무자율성 9문항, 상사의 지지 4문항, 동료의 지지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변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2.1 인구사회학적, 직업관련 및 건강관련행위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신장 및 체중, 주관적인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였다. 직업관련 특성으로는 현 공무원 근무기간, 직급, 주당 잔업시간, 결근여부, 공무원생활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다. 일상생활에서의 건강관련행위로는 흡연상태, 음주상태, 커피음용여부, 규칙적 운동여부, 수면시간, 커피음용여부, 여가활동여부, 외래 및 입원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2.2.2 A형 행동유형(Type A Behavior Pattern)

A형 행동유형은 Haynes 등[5]에 의해 개발된 Framingham Type A Behavior Pattern의 한국판 A형 행동유형척도를 사용하였다[6]. A형 행동유형척도는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4점 척도를 이용하여 「매우 그렇다」 4점, 「대부분 그렇다」 3점, 「조금 그렇다」 2점 및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응답하

게 하였다. 합산한 점수(총 점수 합계 10~40점)가 높을수록 A형 행동유형의 성향을 보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값을 기준으로 「높은 군」과 「낮은 군」으로 구분하였으며, A형 행동유형의 내적 신뢰도를 의미하는 Cronbach's α 계수는 0.701이었다.

2.2.3 통제신념(locus of control)

통제신념은 Levenson[7]의 7개 항목의 축소형 통제신념척도(short forms of locus of control scale)를 이용하였다. 통제신념의 척도는 각각 4항목의 척도로 되어 있으며, 「매우 그렇다」 3점, 「대부분 그렇다」 2점, 「조금 그렇다」 1점 및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합산한 점수(총 득점 합계 0~21점)가 높을수록 통제신념의 성향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값을 기준으로 「높은 군」과 「낮은 군」으로 구분하였으며, 통제신념의 내적 신뢰도를 의미하는 Cronbach's α 계수는 0.762이었다.

2.2.4 자기 존중감(Self-esteem)

자기존중감은 Rosenberg[8]에 의해 개발되어 타당성과 신뢰성이 입증된 자기존중감척도 10항목을 사용하였다. 점수는 자신에게 긍정적 평가항목에 대해서 「매우 그렇게 생각 한다」와 「그렇게 생각 한다」라고 응답한 경우에 1점을 부여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0점을 주었다. 한편 자기에게 부정적인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경우 1점을 주고, 「매우 그렇게 생각 한다」와 「그렇게 생각 한다」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0점을 주었다. 득점(총 득점 합계 0~10점)이 높을수록 자기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값을 기준으로 「높은 군」과 「낮은 군」으로 구분하였으며, 설문지의 내적 신뢰도를 의미하는 Cronbach's α 계수는 0.781이었다.

2.2.5 직무스트레스 내용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내용은 Karasek 등[9]의 직무내용설문지(Job Content Questionnaire; JCQ)를 우리나라 근무환경에 맞게 번안하여 타당도가 검증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6]. JCQ는 직장환경에 기인하는 직업성 스트레스의 요인으로서 업무의 요구도, 업무의 자율성 및 직장의 사회적 지지로 구성되어 있다. 업무의 요구도는 5개

항목으로 구성된 척도이며, 업무의 자율성은 의사결정권한(decision authority) 3개 문항과 기량의 활용성(skill decision) 6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로서 총 14개 항목에 대해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및 「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각각에 대해 0-1-2-3점을 부여하여 Karasek 등 [9]의 점수산정방식에 따라 업무요구도와 업무의 자율성을 산정하였다. 즉, 업무의 요구도 점수가 높으면 업무에 대한 심리적 부담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업무의 자율성 점수가 높으면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권한이 높고 자신의 기량활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업무의 요구도와 업무의 자율성에 대한 신뢰도를 의미하는 Cronbach's α 값은 각각 0.714, 0.765이었다. 직장의 사회적 지지를 나타내는 상사나 동료로부터의 지지는 각각 4항목의 척도로 되어 있으며, 「매우 그렇다」 3점, 「대부분 그렇다」 2점, 「조금 그렇다」 1점 및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으로 응답하게 하여 합산한 득점이 높을수록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하였다. 8개 항목의 내적 신뢰도를 의미하는 Cronbach's α 값은 0.772이었다.

2.3 자료처리 및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전산입력 후 SPSSWIN(ver 17.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분석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직업관련 특성, 건강관련행위 특성, 사회심리적 요인(A형 행동유형, 통제신념, 자기존중감)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의 평균점수는 t-test 및 ANOVA로 검정하였다. 또한 사회심리적 요인과 직무스트레스 내용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독립변수들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량의 유의수준은 $p < 0.05$ 로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직무스트레스 수준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직무스트레스 내용의 수준은 Table 1과 같다. 업무요구도는 여자보다 남자에서 ($p=0.000$), 연령이 낮을수록($p=0.000$), 고등학교이하 학력군보다 대학이상 학력군에서($p=0.000$) 유의하게 높았다.

업무의 자율성은 남자보다 여자에서($p=0.031$), 기혼군보다 미혼군에서($p=0.000$) 유의하게 높았다. 상사의 지지도는 대학 이상 학력군보다 고등학교 이하 학력군에서($p=0.046$), 미혼군보다 기혼군에서($p=0.027$) 유의하게 높았다. 동료의 지지도는 미혼군보다 기혼군에서($p=0.027$) 유의하게 높았다.

3.2 직업관련 특성별 직무스트레스 수준

직업관련 특성별 직무스트레스 내용의 수준은 Table 2와 같다. 업무요구도는 6급과 7급이 8급 이하나 5급 이상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p=0.000$), 근무경력이 낮을수록($p=0.014$), 공무원생활에 만족한다는 군보다 만족하지 않다는 군에서($p=0.012$) 유의하게 높았다. 업무의 자율성은 직급이 낮을수록($p=0.000$), 상사의 지지도는 8급-6급보다 9급 이하와 5급 이상에서($p=0.008$), 근무경력이 30년 이하군보다 30년 이상 군에서($p=0.005$), 공무원생활에 만족하지 않다는 군보다 만족한다는 군에서($p=0.003$) 유의하게 높았다. 동료의 지지도는 근무경력이 30년 이하군보다 30년 이상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33$).

3.3 건강관련행위특성별 직무스트레스 수준

건강관련행위특성별 직무스트레스 내용의 수준은 Table 3과 같다. 업무요구도는 비흡연군보다 흡연군에서($p=0.037$), 수면시간이 충분하다는 군보다 충분하지 못하다는 군에서($p=0.047$) 유의하게 높았다. 업무의 자율성은 읍주군보다 비읍주군에서($p=0.043$), 수면시간이 충분하다는 군보다 충분하지 못하다는 군에서($p=0.022$)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상사의 지지도와 동료의 지지도는 건강관련행위특성 제 변수들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4 사회심리적 요인별 직무스트레스 수준

사회심리적 요인별 직무스트레스 내용의 수준은 Table 4와 같다. 업무요구도는 내적 통제신념이 높은 군보다 낮은군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p=0.038$), 업무의 자율성은 A형행동유형이 높은군보다 낮은군에서($p=0.000$), 내적 통제신념이 높은 군보다 낮은군에서($p=0.002$), 자기존중감이 높은군보다 낮은군에서($p=0.000$) 유의하게 높았다. 상사의 지지도와 동료의 지지도는 내적 통제신념이 낮은 군보다 높은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50$, $p=0.009$).

[Table 1] Mean values of job str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Variables	N(%)	Job demand	Decision latitude	Supervisor support	Coworker support
		Mean±SD	Mean±SD	Mean±SD	Mean±SD
Sex					
Male	505(79.7)	7.83±1.88	15.43±2.93	5.53±2.43	7.19±1.85
Female	129(20.3)	7.04±2.06	16.08±3.52	5.75±2.30	7.12±1.77
p-value		0.000	0.031	0.343	0.683
Age(year)					
≤39	188(29.7)	7.97±1.81	15.75±3.56	5.59±2.41	7.29±1.71
40-49	336(53.0)	7.40±2.25	15.54±2.78	5.47±2.42	7.11±1.93
50≤	110(17.3)	7.22±1.64	15.31±3.00	5.86±2.40	7.21±1.72
p-value		0.000	0.485	0.346	0.526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46(7.3)	6.95±2.10	15.97±2.65	6.28±2.69	7.67±1.54
College≤	588(92.7)	7.73±1.92	15.53±3.10	5.52±2.37	7.14±1.85
p-value		0.009	0.345	0.046	0.060
Marital status					
Married	598(94.4)	7.65±1.91	15.50±2.92	5.58±2.40	7.18±1.82
Unmarried	25(3.9)	8.36±2.56	18.36±3.12	4.84±2.35	6.68±1.90
Others	11(1.7)	7.18±2.08	12.36±5.73	7.18±2.13	8.18±2.04
p-value		0.146	0.000	0.027	0.047
BMI(kg/m ²)					
≤18.5	13(2.1)	6.76±2.18	14.82±4.43	6.00±1.73	6.84±1.67
18.5-25.0	443(69.8)	7.62±1.99	15.71±2.97	5.58±2.42	7.14±1.81
25.0≤	178(28.1)	7.85±1.80	15.24±3.47	5.55±2.41	7.29±1.89
p-value		0.097	0.159	0.810	0.521
Subjective health status					
Healthy	206(32.5)	7.56±1.90	15.38±2.77	5.68±2.56	7.25±1.82
Fair	347(54.7)	7.76±1.95	15.46±3.31	5.48±2.36	7.16±1.86
Unhealthy	81(12.8)	7.56±2.04	16.46±2.53	5.72±2.16	7.08±1.74
p-value		0.431	0.067	0.537	0.738
Total	634(100.0)	7.67±1.95	15.56±3.07	5.58±2.40	7.18±1.83

[Table 2] Mean values of job stress according to job related factors of study subjects

Variables	N(%)	Job demand	Decision latitude	Supervisor support	Coworker support
		Mean±SD	Mean±SD	Mean±SD	Mean±SD
Job position(grade)					
≤9	16(2.5)	6.06±2.20	16.78±3.23	7.12±1.85	7.37±1.20
8	46(7.3)	6.93±2.23	16.12±2.65	5.65±2.36	7.39±1.81
7	217(34.2)	8.13±1.86	16.11±3.21	5.42±2.23	7.11±1.82
6	234(36.9)	7.90±1.83	15.50±2.51	5.35±2.54	7.09±1.88
5≤	121(19.1)	6.90±1.77	14.15±3.30	6.05±2.41	7.36±1.83
p-value		0.000	0.000	0.008	0.605
Job career(year)					
≤9	87(13.7)	7.91±2.34	16.05±3.24	5.51±2.56	7.09±1.87
10-19	283(44.6)	7.88±1.77	15.52±3.14	5.46±2.33	7.20±1.81
20-29	200(31.5)	7.59±1.96	15.52±2.81	5.45±2.45	7.00±1.89
30≤	64(10.1)	7.06±1.70	15.20±3.23	6.59±2.12	7.76±1.58
p-value		0.014	0.362	0.005	0.033
Overtime work(hour/wk)					
≤9	257(40.5)	7.59±1.98	15.59±3.17	5.57±2.53	7.25±1.97
10-19	321(50.6)	7.64±1.92	15.51±3.17	5.56±2.35	7.12±1.74
20≤	56(8.8)	8.17±1.85	15.75±2.86	5.67±2.08	7.16±1.69
p-value		0.124	0.849	0.947	0.700
Experience of sick absence(time/year)					
0	523(82.5)	7.72±1.95	15.54±3.04	5.62±2.41	7.22±1.84
1	70(11.0)	7.17±2.04	15.52±3.25	5.50±2.06	7.02±1.57
2≤	41(6.5)	7.87±1.56	15.85±3.09	5.19±2.87	6.95±2.15
p-value		0.065	0.825	0.528	0.502
Sense of satisfaction in job life					
Satisfaction	457(72.1)	7.55±1.91	15.49±3.07	5.75±2.29	7.20±1.84
Dissatisfaction	177(27.9)	7.98±2.01	15.75±3.06	5.12±2.61	7.12±1.81
p-value		0.012	0.331	0.003	0.617
Total	634(100.0)	7.67±1.95	15.56±3.07	5.58±2.40	7.18±1.83

[Table 3] Mean values of job stress according to health related factors of study subjects

Variables	N(%)	Job demand	Decision latitude	Supervisor support	Coworker support
		Mean±SD	Mean±SD	Mean±SD	Mean±SD
Smoking					
Current smoker	124(19.6)	7.89±1.91	15.62±2.84	5.83±2.52	5.83±2.52
Non-smoker	379(59.8)	7.73±1.99	15.68±3.09	5.45±2.41	5.45±2.41
Ex-smoker	131(20.6)	7.30±1.82	15.17±3.19	5.69±2.24	5.69±2.24
p-value		0.037	0.260	0.236	0.658
Alcohol drinking					
Yes	462(72.9)	7.66±1.97	15.41±3.04	5.67±2.36	7.16±1.84
No	172(27.1)	7.70±1.89	15.97±3.10	5.31±2.50	7.23±1.81
p-value		0.823	0.043	0.089	0.678
Regular exercise/sports					
Yes	247(39.0)	7.61±1.83	15.32±2.86	5.41±2.49	7.19±1.92
No	387(61.0)	7.71±2.02	15.72±3.19	5.68±2.34	7.17±1.77
p-value		0.511	0.113	0.172	0.936
Sleeping times					
Good	324(51.1)	7.53±1.90	15.29±3.10	5.67±2.48	7.25±1.86
Bad	310(48.9)	7.82±1.98	15.85±3.01	5.48±2.32	7.10±1.80
p-value		0.047	0.022	0.307	0.305
Drinking coffee(cup/day)					
0	65(10.3)	7.56±1.69	15.21±2.78	5.20±2.67	7.13±1.84
1	165(26.0)	7.91±2.01	15.12±3.28	5.72±2.47	7.20±1.97
2-3	215(33.9)	7.55±2.01	15.92±2.98	5.70±2.17	7.36±1.68
4≤	189(29.8)	7.63±1.89	15.66±3.03	5.43±2.49	6.96±1.86
p-value		0.316	0.061	0.323	0.185
Leisure time					
Yes	334(52.7)	7.63±1.94	15.40±2.94	5.61±2.49	7.23±1.82
No	300(47.3)	7.72±1.95	15.75±3.19	5.54±2.30	7.12±1.84
p-value		0.555	0.154	0.713	0.413
Visiting out-patient department(/year)					
Yes	326(51.4)	7.80±1.89	15.63±3.00	5.47±2.48	7.07±1.87
No	308(48.6)	7.53±2.00	15.49±3.14	5.69±2.31	7.29±1.78
p-value		0.074	0.545	0.245	0.123
History of hospitalization(/year)					
Yes	17(2.7)	8.11±1.53	15.41±3.79	5.58±2.62	6.94±1.85
No	617(97.3)	7.66±1.96	15.57±3.05	5.58±2.40	7.18±1.83
p-value		0.343	0.834	0.989	0.582
Total	634(100.0)	7.67±1.95	15.56±3.07	5.58±2.40	7.18±1.83

[Table 4] Mean values of job stress according to psycho-social factors of study subjects

Variables	N(%)	Job demand	Decision latitude	Supervisor support	Coworker support
		Mean±SD	Mean±SD	Mean±SD	Mean±SD
Type A behavior pattern					
Low	296(46.7)	7.75±1.88	16.23±2.99	5.57±2.32	7.13±1.86
High	338(53.3)	7.60±2.01	14.97±3.01	5.58±2.47	7.22±1.81
p-value		0.345	0.000	0.979	0.569
Internal locus of control					
Low	329(51.9)	7.82±1.84	15.93±2.85	5.41±2.30	7.00±1.95
High	305(48.1)	7.50±2.04	15.17±3.24	5.75±2.50	7.38±1.67
p-value		0.038	0.002	0.050	0.009
Chance					
Low	374(59.0)	7.55±1.96	15.74±2.85	5.64±2.41	7.24±1.85
High	260(41.0)	7.84±1.92	15.30±3.34	5.48±2.39	7.10±1.80
p-value		0.072	0.073	0.423	0.343
External locus of control					
Low	404(63.7)	7.60±1.92	15.52±3.06	5.69±2.35	7.21±1.80
High	230(36.3)	7.80±1.99	15.64±3.09	5.38±2.47	7.12±1.88
p-value		0.208	0.633	0.118	0.527
Self-esteem					
Low	327(51.6)	7.58±1.89	15.98±2.87	5.69±2.35	7.07±1.88
High	307(48.4)	7.76±2.00	15.12±3.21	5.45±2.45	7.29±1.78
p-value		0.242	0.000	0.220	0.132
Total	634(100.0)	7.67±1.95	15.56±3.07	5.58±2.40	7.18±1.83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job stress and psycho-social factors

Variables	Job demand	Decision latitude	Supervisor support	Coworker support
	Correlation coefficients	Correlation coefficients	Correlation coefficients	Correlation coefficients
Type A behavior pattern	-0.065	-0.255**	0.029	0.028
Internal locus of control	-0.132*	-0.157*	0.060	0.090
Chance	0.019	-0.098	-0.020	-0.016
External locus of control	0.074	0.024	-0.127*	-0.050
Self-esteem	0.014	-0.130*	0.012	0.082

* : p<0.05 , ** : p<0.01

[Table 6]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of selected variables on job stress

Variables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V	
	B	t	B	t	B	t	B	t
Sex(male/female)	-0.151	-0.211	0.071	0.093	0.608	0.764	-0.002	-0.002
Age(year)	-0.110	-2.726*	-0.164	-1.874*	-0.431	-1.417*	-0.182	-1.224*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college≤)	-0.900	-0.930	-0.937	-0.975	-1.140	-1.218	-0.670	-0.786
Marital status (unmarried/married)	-1.839	-1.679	-2.019	-1.876	-1.967	-1.866	-2.784	-1.895
BMI(kg/m ²)	0.114	1.121	0.061	0.607	0.053	0.537	0.026	0.284
Subjective health status(healthy/unhealthy)	4.229	5.696*	3.782	5.145**	3.190	4.348**	2.809	4.213**
Job position(grade)			-0.704	-2.082*	-0.586	-1.754*	-0.126	-1.411*
Job career(year)			0.023	0.370	0.014	0.236	-0.005	-0.092
Overtime work(hour/wk)			0.200	2.232*	0.161	1.384*	0.136	1.299*
Experience of sick absence(time/year)			0.365	2.652**	0.377	2.351**	0.279	1.906
Sense of satisfaction in work (satisfaction/dissatisfaction)			1.871	3.361**	1.620	2.944**	1.591	3.173**
Cigarette smoking(yes/no)					-0.845	-1.333	-0.459	-0.795
Alcohol drinking(yes/no)					-1.145	-1.931	-1.350	-2.508*
Regular exercise(yes/no)					0.565	1.060	0.150	0.309
Sleeping times(good/bad)					1.702	3.426**	1.793	3.972**
Coffee drinking(yes/no)					-0.080	-0.099	-0.699	-0.944
Leisure time(with/without)					1.456	2.763**	1.664	3.462**
Visiting out-patient department/year(yes/no)					-1.385	-2.781**	-1.660	-3.668**
History of hospitalization /year(yes/no)					0.698	0.396	0.584	0.364
Type A behavior pattern							0.529	6.012**
Locus of control							-0.261	-2.871*
Self-esteem							-0.693	-8.293**
Constant	29.924		29.814		37.976		45.129	
F	7.620**		7.076**		6.668**		13.112**	
R ²	0.068		0.111		0.171		0.321	
R ² change	0.068**		0.043**		0.060**		0.150**	

* : p<0.05 , ** : p<0.01

3.5 사회심리적 요인과 직무스트레스 수준과 의 상관관계

사회심리적 요인과 직무스트레스 수준과의 상관관계는 Table 5와 같다. 업무요구도는 내적 통제신념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0.132, p<0.005$)를 보였으며, 업무의 자율성은 A형행동유형($r=-0.255, p<0.001$), 내적 통제신념($r=-0.157, p<0.005$) 및 자기존중감($r=-0.130, p<0.005$)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상사의 지지도는 외적 통제신념($r=-0.127, p<0.005$)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3.6 직무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직무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4개의 모델에 의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모델 I에서는 연령과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이들은 6.8%의 설명력을 보였다.

직업관련 특성들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모델 II에서는 모델 I에서 유의했던 변수가 여전히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직업관련 특성 중에서는 직위, 작업시간, 질병으로 인한 결근 및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직위가 낮을수록, 작업시간이 많을수록, 질병으로 인한 결근횟수가 많을수록, 업무에 불만족한다는 군에서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모델 II에 투입된 변수들로 직무스트레스를 11.1%를 설명할 수 있었다.

건강관련행위특성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모델 III에서는 모델 II에서 유의했던 변수가 여전히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건강관련행위특성 특성 중에서는 수면시간, 여가시간 및 외래진료경험유무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수면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군, 여가시간이 없다는 군 및 외래진료경험이 있다는 군에서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모델 III에 투입된 변수들로 직무스트레스를 17.1%를 설명할 수 있었다.

사회심리적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모델 IV에서는 모델 III에서 유의했던 변수가 여전히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심리적요인 중에서는 A형

행동유형, 통제신념 및 자기존중감이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A형행동유형이 높을수록, 통제신념이 낮을수록, 자기존중감이 낮을수록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모델 IV에 투입된 변수들로 직무스트레스를 32.1%를 설명할 수 있었다. 위의 모델에서 보면 A형 행동유형, 통제신념 및 자기존중감 등의 사회심리적 요인이 추가됨으로 해서 15.0%의 설명력을 증가시켜 직무스트레스에 사회심리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고 찰

본 연구는 C도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들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직업관련 특성, 건강관련행위 특성, 사회심리적 요인(A형행동유형, 통제신념, 자기존중감) 등의 제 요인들과의 관련성을 알아보려고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나타내는 Job Content Questionnaire(JCQ)와 사회심리적 요인을 나타내는 A형행동유형, 통제신념 및 자기존중감의 측정도구는 국내 연구에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여 개발된 한국형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높은 신뢰도 값을 보여 본 연구결과와 신뢰성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조사대상 공무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직무스트레스 내용 수준을 보면, 업무요구도는 여자보다 남자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고등학교이하 학력군보다 대학이상 학력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업무의 자율성은 남자보다 여자에서, 기혼군보다 미혼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사의 지지도는 대학이상 학력군보다 고등학교 이하 학력 군에서, 미혼군보다 기혼군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동료의 지지도는 미혼군보다 기혼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1,10-12]에서도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연령, 성별, 결혼상태, 교육수준 등을 지적하고 있는데, 즉 젊고 미혼이거나 이혼의 경험이 있는 학력수준이 높은 여성에게서 높은 스트레스를 보여 준다고 하였다. 특히 Estryng-Behar 등[13]은 연령이 낮은 군이 높은 군보다 상대적으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은 연령이 낮

을수록 직업에 대한 안정도 및 직무순응도가 떨어지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직업관련 특성별 직무스트레스 내용의 수준을 보면, 업무요구도는 직급이 높은 군보다 낮은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근무경력이 낮을수록, 공무원생활에 만족한다는 군보다 만족하지 않다는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업무의 자율성은 직급이 낮을수록, 상사의 지지도는 8급-6급보다 9급 이하와 5급 이상에서, 근무경력이 30년 이하 군보다 30년 이상 군에서, 공무원생활에 만족하지 않다는 군보다 만족한다는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동료의 지지도는 근무경력이 30년 이하군보다 30년 이상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Cho 등[2]의 연구에서도 직위가 낮을수록, 근무경력이 낮은 군, 직장생활에 만족하지 못한 군에서 스트레스가 높다고 하였으며, 직위가 낮은 군에서 스트레스가 높은 것은 직위가 낮은 경우 안정적이지 못하고 불안정하게 되므로 불안정화가 스트레스 및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14-17]. 또한 직위가 낮을수록 업무의 양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업무에 대한 통제력이 떨어지며, 상대적으로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된다고 보고하고 있다[16,17].

건강관련행위특성별 직무스트레스 내용의 수준을 보면, 업무요구도는 비흡연군보다 흡연군에서, 수면시간이 충분하다는 군보다 충분하지 못하다는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업무의 자율성은 음주군보다 비음주군에서, 수면시간이 충분하다는 군보다 충분하지 못하다는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상사의 지지도와 동료의 지지도는 건강관련행위특성 제 변수들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존의 연구결과에서도 흡연 및 음주를 하는 군,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군, 수면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군 및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군에서 스트레스 수준이 유의하게 높다고 보고하였으며[18-20],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흡연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21], 습관적 흡연과 커피음용이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밀접한 상관성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22].

사회심리적 요인별 직무스트레스 내용의 수준을 보면, 업무요구도는 내적 통제신념이 높은 군보다 낮은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업무의 자율성은 A형행동유형이 높은 군보다 낮은 군에서, 내적 통제신념이 높은 군보다 낮은 군에서, 자기존중감이 높은 군보다 낮은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상사의 지지도와 동료의 지지도는 내적 통제신념이 낮은 군보다 높은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Yoon 등[23]의 연구에서도 A형행동유형의 성향이 높고, 내적 통제신념이 낮으며, 자기존중감이 낮은 군에서 높다고 하였다. 또한 Chang 등[1]의 연구에서도 A형 행동유형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이고 높은 자존감과 통제신념을 갖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하였다.

사회심리적 요인과 직무스트레스 수준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업무요구도는 내적 통제신념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업무의 자율성은 A형행동유형, 내적 통제신념 및 자기존중감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상사의 지지도는 외적 통제신념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Yoon 등[23]의 연구에서도 업무요구도는 A형 행동유형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통제신념, 자기 존중감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업무요구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은 증가하는 반면, 업무 자율성이 떨어지고, A형 행동유형일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반면, 통제신념이나 자기존중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 수준은 감소하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위계적다중회귀분석 결과 직무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 주관적인 건강상태, 직위, 잔업시간, 질병으로 인한 결근, 업무에 대한 만족도, 수면시간, 여가시간, 외래진료경험유무, A형행동유형, 통제신념 및 자기존중감이 선정되었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32.1%이었다. 위의 모델에서 보면 A형 행동유형, 통제신념 및 자기존중감 등의 사회심리적 요인이 추가됨으로 해서 15.0%의 설명력을 증가시켜 직무스트레스에 사회심리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첫째, 본 연구는 단면연구로 사회심리적 요인과 직무스트레스가 한 시점에서 측정되었기 때문에 이들 간의 관련성은 파악할 수 있었으나 인과관계는 규명하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일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에게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심리적 요인(A형 행동유형, 통제신념 및 자기존중감)과 직무스트레스는 응답자의 주관적인 자기기입식방법에 의존하여 측정하였기 때문에 응답편의(response bias)가 개재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직무내용 등

을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한 연구일 뿐 사회심리적 요인과 같은 중재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중재변수를 포함하여 여러 독립변수들이 직무스트레스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직무스트레스는 일의 수행과정상 어쩔 수 없이 경험하게 되는 필연적인 것임을 인식할 때 이에 대한 회피나 모면보다는 예방적 활동, 전략의 모색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와 개인 및 직장 단위의 직무스트레스 감소방안에 대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천 등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Reference

- [1] Chang SJ, Koh SB, Kang MG, et al. Epidemiology of psychosocial distress in Korean employees. *Korean J Prev Med* 38(1):25-37, 2005.
- [2] Cho KH, Lee DB, Cho YC. Psychosocial distress and its related factors among clerical public officers. *Korean J Occup Environ Med*, 19(1):26-37, 2007.
- [3] Cooper H, Okamura L, McNeil P. Situation and personality correlates of psychological well-being: social activity and personal control. *J Res Personality*, 29:395-417, 1995. DOI: <http://dx.doi.org/10.1006/jrpe.1995.1023>
- [4] Rotter J. *Social Learning and Clinical Psychology*. Englewood Cliffs: Pentice-Hall, 1975.
- [5] Haynes SG, Levine S, Scotch N, Feinleib M, Kannel W. The relationship of psychosocial factors to coronary heart disease in the Framingham study. *Am J Epidemiol* 107:362-383, 1978.
- [6] Chang SJ. A study on the distribution and risk factors for psychosocial distress, and the development work site stress reduction program.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1.
- [7] Levenson H. Multidimensional locus of control in psychiatric patients. *J Cons Clin Psychol*, 41:397-404, 1973. DOI: <http://dx.doi.org/10.1037/h0035357>
- [8] Rosenberg M.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9] Karasek R, Theorell T, Schwartz JE, Schnall PL, Pieper CF, Michela JL. Job characteristics in relation to the prevalence of myocardial infarction in the US Health Examination Survey (HES) and the Health and Nutrition Survey (HANES). *Am J Public Health*, 78:910-918, 1988. DOI: <http://dx.doi.org/10.2105/AJPH.78.8.910>
- [10] Cha BS, Koh SB, Chang SJ. The association between job characteristics, psychosocial distress and homocysteine. *Korean J Prev Med*, 31:719-727, 1998.
- [11] Jo YJ, Cho YC.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psychosocial stress among clerical public officer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2(6):2598-2606, 2011.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1.12.6.2598>
- [12] Kim DH, Cho YC. Occupational stress and its associated factors among male workers in small-scale manufacturing industries under 50 members.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0(10):405-413, 2012.
- [13] Estryñ-Behar M, Kaminski M, Peigne E, Bonnet N, Vaichere E, Gozlan C. Stress at work and mental health status among female hospital workers. *Br J Ind Med*, 47:20-28, 1990.
- [14] Ferrie JE, Shipley MJ, Marmot MG, Stanfeld S, Smith GD. Health effects of anticipation of job change and non-employment; longitudinal data from the Whitehall II study. *BMJ*, 311(7015):1264-1269, 1995. DOI: <http://dx.doi.org/10.1136/bmj.311.7015.1264>
- [15] Vahtera J, Kivimaki M, Pentti J. Effect of organizational downsizing on health of employees. *Lancet*, 350(9085):1124-1128, 1997. DOI: [http://dx.doi.org/10.1016/S0140-6736\(97\)03216-9](http://dx.doi.org/10.1016/S0140-6736(97)03216-9)
- [16] Kivimaki M, Vahtera J, Pentti J, Ferrie JE. Factors underlying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downsizing on health of employees: longitudinal cohort study. *BMJ* 320(7240): 971-975, 2000. DOI: <http://dx.doi.org/10.1136/bmj.320.7240.971>
- [17] Koh SB, Son MA, Kong JO, Lee CG, Chang SJ, Cha BS. Job characteristics and psycho-social distress of atypical workers. *Korean J Occup Environ Med* 16:103-113, 2004.
- [18] Kim SH, Yun GS. A study on the stress and fatigue of research workers. *Korean J Occup Environ Med* 10(1):105-15, 1998.
- [19] Oh JK. Structural modeling of stress, life style and health status in industrial employees. *Korean J Occup Environ Med* 12(1):26-40, 2000.
- [20] Kang JW, Hong YS, Lee HJ, Yeah BJ, Kim JI, Kim JM, Jung KY, Kim JY. Factors affecting fatigue and stress in male manufacturing workers. *Korean J Occup Environ Med* 17(2):129-137, 2005.
- [21] Cha BS, Koh SB, Chang SJ, Park JK, Koh SY. Effect of noise exposure and psychosocial factors on blood pressure

in manufacturing workers. Korean J Occup Environ Med 9(2):244-257, 1997.

[22] Conway TL, Ward HW, Vickers RR, Rahe RH. Occupational stress and variation in cigarette, coffee, and alcohol consumption. J Health Soc Behav, 22:155-165, 1981.

DOI: <http://dx.doi.org/10.2307/2136291>

[23] Yoon HS, Cho YC.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contents, psychosocial factors and mental health status among university hospital nurses in Korea. Korean J Prev Med 40(5):351-362, 2007.

조 영 채(Young-Chae Cho)

[정회원]



- 1980년 2월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석사)
- 1991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수의학박사)
- 1990년 2월 ~ 현재 : 충남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

<관심분야>

환경 및 산업보건, 건강관리

박 호 진(Ho-Jin Park)

[정회원]



- 2012년 2월 : 충남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석사)
- 2013년 3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보건학박사과정)
- 2008년 6월 ~ 현재 : (주)메스코리아 대표이사

<관심분야>

보건학, 의료관리학, 의료기술학,

박 승 경(Sung-Kyong Park)

[정회원]



- 2003년 8월 : 충남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석사)
- 2006년 8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보건학박사)
- 2004년 9월 ~ 현재 : 대전보건대학 피부미용과 조교수

<관심분야>

보건학, 피부미용, 건강관리